

미 해군 제독, “레이저 및 전자기포가 향후 미 해군의 주력 무기 될 것”

등록 2015.02.10 18:38:22 | 수정 2016.12.28 14:33:45

【캔버라=AP/뉴시스】최현 기자 = 9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차세대 무기로 개발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첨단 이동식 레이저건과 레일건의 낮은 사용 비용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히면 이 신형 무기들이 향후 미 해군의 주력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너선 그리너트 미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호주 캔버라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열린 강연 자리에서 "레이저건과 레일건은 화약이 필요 없고 비용 걱정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 시스템(LaWS)은 실전 배치를 위한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군함 위에 탑재해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레이저건은 10초 가량 쏘는데 드는 비용이 1달러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레이저건에 10초 가량 노출되면 50m 길이 전함의 엔진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폭발력을 가진 미사일은 1발당 2만 달러에 달한다.

발사 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레일건의 경우 160km를 음속 7배 속도로 날아가며, 위력은 32메가줄(MJ)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MJ는 1t 무게의 물체를 시속 160km 속도로 발사하는 힘을 나타낸다.

미 해군은 2016년부터 레일건을 함정에 장착해 해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forgetmeno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